Golang 써본 후기

신연진

2023년 11월 1일



들어가는 말

Go 언어 소개 장점

명령어

문법

비동기 관련 문법

그래서 Go를 왜 쓰는가?

들어가는 말

- ▶ 기존에 운영되던 다음 사이트들은 Node.js로 개발되어 있었다.
 - https://calendar.puang.network
 - https://pre-timetable.puang.network
 - https://rss.puang.network
- ▶ Go언어가 괜찮다던데? 위 사이트들을 Go언어로 재작성해볼까?
 - ▶ 그리하여 Go언어를 써보게 됐다.

Go 언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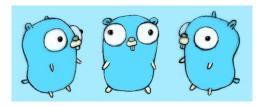


Figure: Go gopher

- ▶ Google이 2009년에 개발한 언어
- ▶ 뇌비우고 코딩하기 좋은 언어
- ▶ 쓰다보면 묘하게 C언어 느낌이 좀 든다...

Go 언어의 장점

- 추상화의 한계 클래스 상속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나친 추상화로 인해 고통받을 일이 없다.
 - ▶ C언어에서 struct와 함수로만 코딩하는 느낌. 다만 struct에 함수를 묶을 수는 있다.
- ▶ 간단한 채널과 비동기 호출
 - ▶ 함수 앞에 go 키워드 하나만 비동기로 실행된다.
 - ▶ 채널을 이용하면 비동기로 호출된 Task 간의 데이터 전달이 쉽다.
- ▶ 컴파일 언어
 - ▶ 당연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보다 빠르다.
- ▶ exception handling이 없다. 오류를 return value로 던진다(!)



명령어

- ▶ go mod init zeropage.org/example 프로젝트 초기화
- ▶ go run 실행
- ▶ go build 빌드
- ▶ go test 테스트
- ▶ go get example.com/example_pkg 패키지 설치

Go언어 문법 I

▶ 변수 선언

```
var test int // Define
test = 1 // Assign

test2 := 2 // Define and assign

test3 = 3 // Error! test3 is not defined
```

▶ 형변환

```
var i int = 42
f := float64(i)
```



Go언어 문법 II

▶ 반복문

```
for i := 0; i < 5; i++ \{
   fmt. Printf ("%d n", i)
for j < 100 \{
  i += 1
   fmt. Printf("%d n", j)
   fmt. Printf("Infinitttttty")
```

Go언어 문법 III

▶ 함수 선언

```
func example(a int, b int) int {
   return a + b
}
```

▶ 조건문과 복수 개의 반환값

Go언어 문법 IV

▶ 기명의 반환값

```
 \begin{array}{lll} \textbf{func} & \textbf{plusTwoAndFour(a int, b int)} & (\texttt{c, d int}) & \{ & \texttt{c} & \texttt{a} & \texttt{+} & \texttt{2} \\ & \texttt{b} & \texttt{d} & \texttt{+} & \texttt{2} \\ & & \textbf{return} & \\ \} \end{array}
```

▶ 패키지 선언 및 패키지 import

```
package main

import (
    "fmt"
    "example.com/example_pkg"
)
```

Go언어 문법 V

defer

```
func example() {
   defer fmt.Println(",~world!")
   fmt.Print("Hello")
}
```

- switch
 - ▶ 참고: 조건 없으면 switch true랑 동일함

```
switch a {
    switch 1:
    // Do something
    switch 2:
    // Do something
    default:
    //Do something
}
```

Go의 비동기 문법 I

▶ 비동기 호출

Go의 비동기 문법 II

▶ 채널

```
package main
import "fmt"
func sum(s []int, c chan int) {
  sum := 0
  for \_, v := range s {
    sum += v
  c <- sum // send sum to c
func main() {
  s := [] int \{7, 2, 8, -9, 4, 0\}
  c := make(chan int)
  go sum(s[:len(s)/2], c)
  go sum(s[len(s)/2:], c)
  x, y := \langle -c, \langle -c \rangle / receive from <math>c
  fmt.Println(x, y, x+y)
```

Go의 비동기 문법 III

range

```
func printer(c <-chan int) {</pre>
    for i := range c {
        fmt.Printf("%d", c)
func main() {
    ch := make(chan int, 10)
    go printer (ch)
    go printer (ch)
    go printer(ch)
    for i := 0; i < 100; i++ {
        ch <- i
```

그래서 Go를 왜 쓰는가?

- ▶ 단순한 문법
 - ▶ 단순하다 →무식하게 코딩하기 딱 좋다
- ▶ 테스트 프레임워크 기본 내장
 - ▶ 테스트 코드 짜기 편하다
- ▶ 동시성
 - ▶ 함수 호출 앞에 go만 붙이면 비동기 호출이 된다고?
- ▶ 안 쓰는 변수가 있을 시 오류 발생
 -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지만, 실수를 예방해준다는 측면으로 보면 좋은 점이다.